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힘 모은다

20개 단체와 지역협의체 업무 협약 6월말 지정공모 신청서 접수 계획

영광군이 교육부가 공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지역교육·경제 단체와 힘을 모은다.

영광군은 지난 12일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추진 지역협의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영광군과 영광교육지원청,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동강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영광고, 해룡고, 영광공업고, 법성고, 영광전자고, 영산성지고 등 20개 기관이 참여했다.

? 교육발전특구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낮추고 머물며 살아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지역은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대응 자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룡고, 영광공업고, 법성고, 영광전자고, 영산성지고 등 2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 전략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E)모빌리티' (전기 이동 장치)와 에너지, 농·수·축산업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협약 내용에 담았다.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영광군은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사업 준비를 마치고 이달 말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영광 교육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지역 학교와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군이 지난 12일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영광군 제공)

“불거리·즐길거리 가득~ 해남 매일시장서 달달하게 장보세요”

매달 둘째·넷째 주 금요일 '땅끝달달 문화야행' 진행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에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행사를 벌인다.

해남군은 1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에서 '땅끝달달 문화야행'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매일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처음 문을 연 뒤 다양한 먹거리를 내걸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었다.

올해 해남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팀은 '땅끝달달 문화야행'이라는 행사를 마련해 시장 먹거리에 불거리, 즐길 거리를 더했다.

해남군은 5년간 추진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해남읍 상권 중심지인 읍내리와 성내리 일원에 특화 거리를 만들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판매장 등 관광객 거점 공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매일시장 야시장은 '먹거리 4대 주(酒)락'을 새롭게 선보인다.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맥'과 '무소'(무침류+소주), '부막'(부침개+막걸리), '건폭'(건어물+고치류+폭탄주) 등을 접목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

14일 첫 야시장 행사는 '초콜릿에 흠뻑 달달야행'을 주제로 진행한다.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초콜릿을 듬뿍 끼얹은 풍류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이 14일부터 다양한 공연과 '4대 주락'을 내건 '땅끝달달 문화야행' 행사를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한다. (해남군 제공)

주제에 맞게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악이 시장에 울려 퍼지고, 다채로운 무대도 펼쳐진다.

참가자 100% 당첨되는 '땅 없는 돌림판' 행사와 2층 정년물 공예체험 등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맞는다.

공예체험을 사전 예약한 선착순 50명에게는 3000원의 체험료를 정년물 이용권으로 되돌려 준다. 매일시장은 야시장 사업과 함께 온·오프라인 생

산 기반을 구축하고, 상인·창작자의 역량 강화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원도심에 있는 매일시장 야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선보이는 만큼 더욱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시장 활성화를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쌀 최대 21% 할인... 영암물 30일까지 기획전

영암군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암물'이 오는 30일까지 전 상품 15% 할인기획전을 선보인다.

기획전에서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정 해소와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쌀 구매 추가 5% 할인 행사도 병행해 원가보다 최대 21%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6·7월 제철상품 선 예약 할인행사인 '사전 특가 예약',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목요특가' 이벤트도 한다.

영암물은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지인에게 영암 농특산물을 보낼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 농가는 소득을 높이고, 전국 가계는 절약할 수 있는 이번 할인기획전에 전국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기자 노트

신안군 남이 가지 않는 길의 후광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성과보고회(주제 남이 가지 않는 길)를 가졌다. 1시간 30여 분의 보고회와 질의응답은 그가 왜 편안하고 쉬운 길을 두고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어려운 길을 가려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흥승표 전 경기 관광공사 사장의 "우리는 익숙한 길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가지 않는 길'은 한편으론 무섭고,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

이다. 비록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해도 막상 길 위에 들어서면 후고 길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글이 떠올랐다. 이는 개념 없이 남을 따르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만의 미래에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박 군수의 외로운 행보가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육지와 근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과는 생활 환경이 너무 다른 지리적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이라고는 적박한 곳에서 농업과 일부 어업이 전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모든 생활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유일한 선박으로 기상이 조금만 안 좋아도 육지에 나올 수 없는 오지나 다른 바 없는 섬의 생활이었다.

이를 확 바꿔 놓은 것이 박 군수다. 그는 취임한 후, 섬이라는 지역 구조와 열악한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신안 미래의 방향을 스케치하면서 섬이라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모방보다는 남

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가지 않는 길만이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잘사는 신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봤다.

획기적인 창의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성과를 냈다. 신안 전 지역(특산 공항건설로 제외) 연륙교사업 2030년 준공과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이익공유제로 성공, 지역 구조에 맞추어 각 지역 곳곳에 문화 예술 공간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지역에서 신안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는 인구가 179명이나 증가했다.

박 군수가 신안을 이토록 성장시켜 올 때까지 일부 주민의 따가운 눈총에 좌절했거나 거친 반대에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밤낮없이 오로지 신안을 일등고지에 올려놓겠다는 신념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었기에 인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박 군수는 여전히 특색 있게 우리만이 가야 하는 길을 가자지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을 가다 보면, 배가 육지로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구조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잘 다져진 길은 모두가 편히 가는 길이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고난과 동반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력과 창조력을 자아낼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sslee@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서광주농협

아름다운 동행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노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노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